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 전국 확대

- 노동법·산업안전 등 실무 중심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하고, 중소기업장을 위한 지역 밀착형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교육원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며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현장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교육 접근성이 낮고 대응 여력이 부족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등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노동인권 기반의 상호 존중 조직문화 형성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관계 법령 변화 이해 ▲근로조건 및 노무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외, 경영자총협회와 협력하여 전국단위 지역 경총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국 단위 창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위한 기초 노동법 교육도 병행한다.
- 이번 교육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현장 관리자 등 총 1,400여명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종선 원장은 “중소사업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며 “지역거점 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현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존중사회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개자료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책임자	팀 장	이용호	(031-760-7770)
		담당자	연구원	정유진	(031-760-7771)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소개자료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통합·운영되다가,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근거로 독립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출범

- **교육원의 설립목적(교육원법 제1조)**
 - : (대상) 노사관계 당사자와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 : (수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동관계 문제 해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 (목적)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교육원의 주요 기능(교육원법 제6조)**
 - : ①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②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③ 청소년·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④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⑥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등

- **주요연혁**
 - 한국노동교육원 설립 : 1990년
 - 교육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1999년)
청소년 등 일반 국민(2004년)
 - 기관 및 근거 법률 폐지: 2008.12
 - * 기존의 관련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
 - 독립기관(노동부 12개 산하기관 중 하나)으로 재출범 : 2020.10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다시 제정(2020.3)